

내년 최저임금 내일 밤 결정... '1만원 돌파' 최대 관심

1만620원 vs 9785원...노사 격차 835원으로 좁혔지만 입장차 여전 표결시 근로자 위원 적어 노동계에 불리...22년만에 가장 늦은 의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이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620원→9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찜땀'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가 애초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도 있다.

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차는 매년 현격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 올해는 이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노사 합의,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중재안 표결, 노사 요구안 중 하나로 표결 등 크게 세 가지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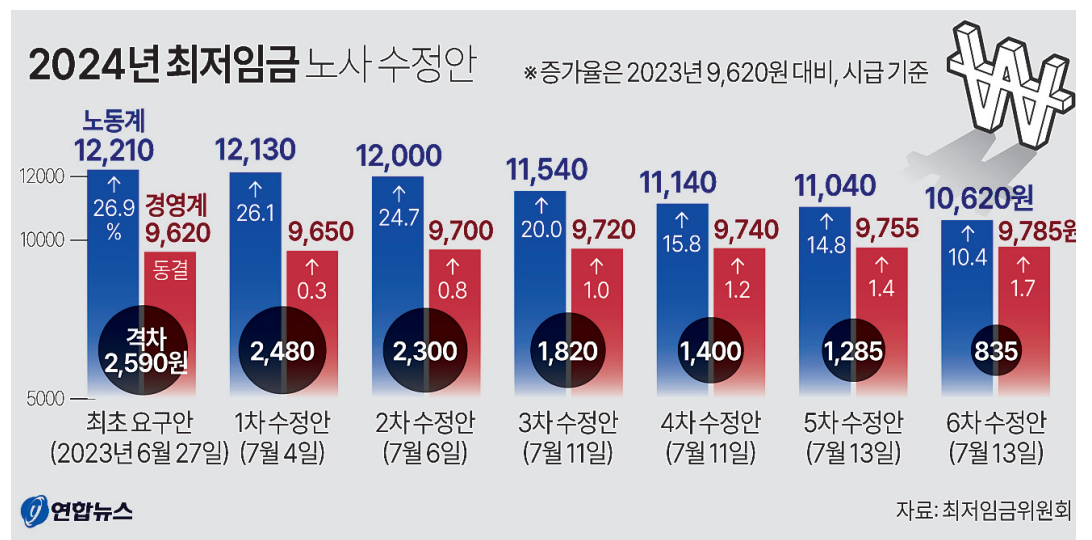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폐업을 고민한다"며 대폭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선다.

결국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투표에 부릴 경우 노동계에 불리할 수도 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익위원 중재안에 노사가 모두 반발할 경우, 이 같은 불균형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노사 일부가 퇴장해버린 뒤에도 표결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

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에는 7월 16일 의결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일뉴스

새마을금고 사태에도 예금 늘어난 '2금융권'

상호금융·저축은행 수신잔액 2.4조 증가...불안 사태 안정 국면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같은 2금융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우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의 수신 잔액은 604조3000억원으로 6월 말(601조9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달 3일 601조3000억원에서 다음 날인 4일 7000억원, 5일 5000억원, 6일 7000억원, 7일 1조원씩 늘어났다.

예금 인출이 감소세에 접어든 10일에는 수신잔액이 604조300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000억

원 늘어났다.

저축은행 역시 안정적인 수신 잔액을 유지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작년 연말 120조2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14조6000억원까지 줄었다가 6월 말에는 114조9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에는 114조6000억원~115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10일 기준 잔액은 115조원으로 6월 말보다 1000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같은 2금융권에 속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 금융사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저축은행이 보수적인 관점

에서 여신 운용을 축소하고 수신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4월까지 수신이 감소했지만, 5월을 기점으로 점차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새마을금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7월 중에도 안정적인 수신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 이후 새마을금고 사태는 빠르게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새마을금고 사태 등은 특정 금융 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새마을금고 불안 사태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뉴스

'자금난' 지역 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광주테크노파크 투자유치 설명회...30개사 밀착 상담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분부와 최근 광주중대중견컨선센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기업 12개사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출제한 투자펀드 운용사를 비롯한 수도권 벤처캐피탈(VC) 30여개사가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은 실제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운용 중인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실전 IR 발

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받았다.

특히 IR 발표 후 이어진 투자상담회에서는 참가기업과 VC 간의 1대1 투자미팅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검토를 위한 밀착 상담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IR)에서도 참가기업 9개사 중 3개사가 IR 참석한 VC 등 관련 투자사들로부터 총 95억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2개사가 추가로 총 70억원 규모의 투자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IR 행사를 통한 투자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행원, 금융인으로 첫 발

채용인원 80% 이상 지역 청년 채용...19명에 사령장 수여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고병일 은행장과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의 직무연수와 6개월의 수습근무를 마친 19명의 신입행원들은 사령장을 받고 정식 행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현장에서 금융환경을 몸소 체험하는 등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고 은행장은 신입행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정직한 은행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프로 은행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함에 따라 올해도 전체 19명 중 17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부담 '적정'

중기중앙회 유통거래 실태조사...평균 판매수수료율 21.3%·18.7%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 9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를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백화점의 경우 롯데가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AK플라자(22.1%), 신세계(21.5%), 갤러리아(20.4%), 현대(19.3%) 순이었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9.8%)와 롯데마트(19.7%), 이마트(18.0%), 하나로마트(17.0%) 순이었다.

또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는 평균 18.0%였다.

백화점의 마진율은 AK플라자가 25.0%로 가장 높고, 신세계(24.3%), 현대(24.1%), 갤러리아(23.3%), 롯데(21.8%) 순으로 뒤를 이었고, 대형마트는 롯데마트(20.1%), 하나로마트(18.3%), 이마트(17.3%), 홈플러스(16.4%) 순이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적정성은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

100점 만점 기준에 비용 부담 체감도는 백화점이 56.4점, 대형마트는 50.1점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부담된다는 비율보다는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은 편이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생산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부담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강진 상수도 우수율 94.5% 전국 최고

노후 상수관망 25.6km 정비...년 7억원 비용 절감 효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강진군이 추진하는 '강진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성과관정 위원회로부터 성과관정 '합격'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최종 우수율은 94.5%로 현재까지 완료된 현대화사업 중 전국 최고 우수율을 기록했다.

현대화사업은 농어촌지역 상수관망의 심각한 누수율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전남에서는 총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8개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강진군은 총 사업비 195억8400만원을 투입해 사업대상지역인 강진읍, 병영면의 노후 상수관망 25.6km를 정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위해 강진 지역에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 64.8%에 불과했던 우수율을 94.5%까지 끌어 올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61만 t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 이로 인해 연간 약 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 구축으로 시·군단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가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민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이번 성과는 공사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강진군의 의지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며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7	9	33	36	37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672,689,750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6,616,682	86
3	5개 숫자일치					1,289,494	3,109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521
5	3개 숫자일치					5,000	2,417,204